**스토리라인**

**제목**: 스위칭(가제)

**장르**: 공간조작퍼즐

**타깃**: 전연령

**플레이시간**: 10분~20분

**게임진행방법**: 주인공의 능력(전이, 인력, 척력)을 이용하여 퍼즐을 풀어 나아간다.

**등장인물**: 주인공, 조력자(목소리), 보스 (각 캐릭터의 세부내용은 캐릭터설정정의서 참고)

**게임설정**: 평범했던 주인공에게 어느 날 누구인지 알 수 없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목소리의 주인은 주인공에게 초능력(전이)을 주며, 자신을 도와준다면 다른 능력 또한 주겠다며 유혹했다. 전이 능력을 사용하고 그에 매료된 주인공은 목소리의 권유에 응했고, 그의 요구대로 [ ]으로 향한다. 목소리의 주인은 주인공에게 세상을 구하기 위해 주인공의 힘이 필요하다는 말은 꺼내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를 꺼냈다가는 자신을 따라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개**:

1스테이지

목소리는 퍼즐을 풀면 새로운 능력을 줄 것을 약속하며 퍼즐을 푸는 방법에 대해 알려준다. 퍼즐을 푼 주인공에게 목소리는 새로운 능력(전이폭탄)을 개방시켜준다. 이렇게 능력을 자유롭게 개방시킬 수 있는 목소리의 정체가 궁금해진 주인공은 목소리에게 정체를 물어보지만 목소리는 대답을 피한다.

2스테이지

목소리는 새롭게 얻은 능력에 대해 설명해준다. 또한, 기술을 전환하는 방법도 알려준다. 퍼즐을 푼 주인공에게 목소리는 새로운 능력(인력)을 개방시켜준다.

3스테이지

목소리는 새롭게 얻은 능력에 대해 설명해준다. 퍼즐을 푼 주인공에게 목소리는 새로운 능력(척력)을 개방시켜준다. 그리고 목소리는 드디어 주인공에게 저의를 드러낸다. 목소리는 사실 이 건물은 시간능력자의 아지트였으며, 시간능력자는 세계의 시간을 정지시키려고 하고있었으며, 주인공에게 능력을 주었던 이유는 그를 이용하여 시간능력자를 저지하려던 것이었음을 주인공에게 밝힌다. 목소리는 약속대로 주인공에게 이를 도와줄 것을 부탁한다.

4스테이지

목소리는 주인공에게 시간능력자는 매우 강하며 그를 이기기 위해서는 능력을 숙달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한다.

5스테이지

목소리는 시간능력자에게는 공격해도 다시 되살아나는 능력을 사용하는 것 같다고 이야기 해 준다. 이야기를 들은 주인공은 자신이 시간능력자를 이길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기 시작한다.

보스스테이지

주인공은 능력을 준 것은 고맙지만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의 말만 듣고 자신의 목숨을 거는 바보는 아니었다. 그래서 목소리가 정체를 밝히지 않는 점을 구실삼아 보스와의 대면을 피하려고 목소리에게 정체를 밝히라며 트집을 잡았다. 그러자 목소리는 어쩔 수 없다는 듯 자신의 정체를 밝히기로 한다. 사실 목소리는 다른 평행세계에서 온 주인공이었고 그는 시간능력자에게 패하고 이쪽 세계로 넘어오게 된 것이었다. 그러나 이 쪽 세계에서는 아직 시간능력자의 능력이 모두 해방되지 않은 상태임을 알고 이 쪽 세계의 주인공, 즉 자신을 도와 그의 계략을 막고자 했던 것이었다. 이야기를 들은 주인공은 잠시 생각하고는 이내 결심한듯 보스스테이지의 문을 연다.

**결말**

시간능력자를 무찌르자 목소리가 고맙다고 인사한다. 자신 또한 주인공의 모습을 보고 용기를 얻어 원래 세계로 돌아가서 다시 한 번 시간능력자를 막아보겠다고 하며 원래 세계로 돌아간다. (욕심같아서는 목소리를 최종보스로 하고싶다…)